

# 연휴 끝·새학기 시작...광주 병원 감기 환자 '복세통'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 행렬 '만석'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소세 불구  
환절기 변수... "B형 독감 등 주의"



최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광주 병원 곳곳이 B형 독감 등 감기 환자로 복세통을 이루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감소세이나, 환절기가 맞물리면서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환자 등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윤찬용 기자

"6살 딸아이가 열이 38.5도까지 올라 병원에 왔더니 B형 독감이라네요. 어린이집 가는 걸 좋아하는데,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집에서 잘 케어해야 할듯요."

3-1절 연휴가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광주 병원 곳곳이 감기환자로 복세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까지 집계된 통계상으론 인플루엔자는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환절기와 개학 등이 맞물려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8주차(2월16-22일) 기준 병상 3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의사환자 비율)는 44.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의사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6주차가 52.6명이었고 7주차가 45.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절기상 유행 기준인 9.1명을 한참 상회하는 수치이고 ▲38도 이상 고열 ▲기침·인

후통 등 호흡기 증상 ▲구토·복통·설사 등 소화기 증상 동반이 특징인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6주차 34.2%, 7주차 36%, 8주차 33.5%로 꾸준히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의원급 보다 병상 규모가 큰 병원

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도 6주차 443명, 7주차 346명에 이어 8주차 219명으로 집계됐다.

9주차 이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개학 이후 학생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학령기 아동들 중심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광주 지역 병원 곳곳에는 고열과 인후통 등 감기와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전 8시30분께 찾은 광주 북구 한 아동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약 20명이 진료를 기

다리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은 연신 기침을 하거나 보호자 품에 안겨 축 처진 상태였다.

진료 시작 후에는 독감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종종 보였는데, 검사실을 나온 이들의 표정은 안도와 우려가 교차했다.

6살 아이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는 학부모 이해민(30대·여)씨는 "아이 열이 38.5도까지 올라 검사를 받았더니 B형 독감이라고 했다"며 "수액을 맞고 약을 먹으니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오전 9시 이후 찾은 남구 한 이비인후과도 대기 환자와 보호자로 진료실 밖이 꽉 차 있었다.

코를 훌쩍이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며 순서를 기다리던 보호자들은 너도나도 독감만은 아니길 바랐다.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권모(40대·여)씨는 "검사 결과 다행히 독감이나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유행 소식만 들려도 혹시나 옮을까 늘 걱정"이라며 "모두가 조심하는 것 말고는 무슨 수가 있겠냐"고 푸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검출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운데 B형 독감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며 "환절기와 개학 시기가 겹치면서 학령기 아동들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우·윤찬용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서 '유해 조각' 추정 또 나와

국과수 인계...인골 여부 먼저 파악  
지난주 발견 희생자 정강이뼈 확인  
유가협, 내주 상경...수습 당국 규탄



실린다. 또 이날 스마트폰 2대와 다수의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돼 앞으로도 유의미한 발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너무 참담하다"며 "초반에 왜 이렇게 수습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 유류품이 다 타버려서 이거 밖에 없다는 수습 당국의 말에 유가족들은 정말 고마워했다"며 "우리의 인사는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됐다"고 분개해 했다.

그러면서 "20cm 정도의 정강이뼈가 수습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당시 수습 현장이 얼마나 마무리에만 급급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열변 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6일에도 이어지는 잔해물 제조사 및 잔해 보관 개선 작업에 참관하며 다음 주 중 상경해 참사 당시 수습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12:20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서 희생자의 인골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가로 수습됐다. <사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 등은 5일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기 잔해물 제조사 및 잔해 보관 개선 작업을 재개했다. 해당 작업은 지난달 12일 첫 시작 이후 네 번째를 맞았다.

재개 약 50분 만에 희생자의 인골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발견됐다. 크기는 가로 2cm·세로 3cm 정도다.

검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인계해 인골이 맞는지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인골이 맞다면 희생자 DNA와 대조해 신원을 특정하고 신체 어느 부위인지도 조사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이뤄진 동일 작업 중 발견된 20cm 안팎의 유해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정강이뼈로 확인됐다.

이날 수습된 유해 추정 물체의 인골 여부 확인 시일이 더 필요하나, 잇따라 발견이 이뤄진 만큼 남아 있는 잔해물에도 아직 수습되지 못한 시신 일부가 있을 거라는 데 무게가

## '도박자금 미변제' 임창용, 2심도 무죄 주장

"사기 유죄여도 징역 8개월 과해"  
檢 "양형 낮아"…내달 2일 재개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 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지인은 1억5천만원 중 7천만원만 변제됐다고 임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임씨는 도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이 아니라 칩을 빌렸고 액수도 1억5천만원이 아닌 7천만원이었던 만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 같은 주장을 이날도 이어간 임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유죄라고 한들 원심의 양형은 과하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이유로

임씨의 양형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이날 출석한 임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2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임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안재영 기자

## 장흥 용화사 불...도 유형문화재 '무사'

장흥 용화사에서 불이 나 상당 부분이 소실됐으나, 전남도 유형문화재 등 주요 자산은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7분께 장흥군 용화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4시간 10분 만인 오전 4시47분께 화재를 완전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려들이 거주하는 요사채 2개 동과 내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용화사에 보관 중인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46호 약사여래좌상도 화재 피해는 입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